

“U대회 개·폐회식 보다는 좋은 경기 할수있게 투자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점검단 2015광주U대회 1차 점검

“2015년 3월까지 모든 게 완료되어야 한다. 과열된 개폐회식을 지양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존 와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경기위원회(CTI) 점검단이 3일 서구 치평동 U대회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광주를 찾은 점검단은 조정을 제외한 20개 종목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경기, 훈련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핸드볼, 기계체조, 다이빙, 배드민턴, 탁구 등 A그룹 5개 종목에 대한 점검을 끝낸 이들은 9일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점검단은 “광주조직위와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CTI의 역할이다”며 “경기장과 선수촌과의 거리를 우선으로 보고 있다. 시설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조직위로 통보가 되고 앞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 즐겁게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촌과의 거리와 함께 신축경기장의 완공시점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점검단은 “앞선 대회의 경우 새 건물의 레이아웃이 틀리게 나와서 변경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력작업이 이뤄져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마감 시한이 중요하다. 늦어도 2015년 3월까지 새 경기장이 모두 완공이 되어야 한다. 그 레이아웃과 IT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탁구 경기장 크기가 작다는 의견이 있고, 골프의 경우 훈련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격의 경우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는 홀이 부족하고 전자 타겟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며 “8일 C그룹의 점검까지 이뤄지고 나면 전반적인 틀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이

기도한 후안 칼로스 홀가도 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양궁 선수들이 한국에 있어서 성공적인 대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지역, 국가, 세계 연맹의 참여가 중요하다.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축 야구장에서의 폐막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마크 반덴플라스 U대회 국장은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개·폐회식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돈도 더 많이 투자되고 경쟁적으로 하는데 경기 자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스포츠의 가장 큰 유산은 인프라다”며 “한국 생활이나 학생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개·폐회식의 창의적이고 좋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와 교육, 학생들의 대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번 대회를 위해 유럽 스포츠 채널과 방송계약이 체결됐고, 미국·캐나다·멕시코 그리고 아시아 전지역에 대회가 방영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과 협의중이다. 12일 캠퍼스라는 특별 잡지가 발간되는데 한국에 초점을 맞춰 다룰 예정이다. U대회가 광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FC서울 데얀이 최우수선수상(MVP)을 차지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데얀민국’

데얀, K리그 MVP·득점왕·베스트11·팬타스틱 플레이어 4관왕

신인왕 이명주·감독상 최용수

2년 연속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몬테네그로 특급’ 데얀(서울)이 2012년 프로축구를 빛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또 FC서울을 챔피언으로 이끈 최용수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고, FC서울은 베스트팀으로 선정되는 등 올해 시상식은 ‘서울 천하’가 됐다.

데얀은 3일 오후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됐다. 데얀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116표 가운데 92표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올해 개인 통산 최다골(141골) 기록을 달성한 ‘라이

언킹’ 이동국(전북·19표)을 73표 차로 제치고 K리그 최고의 별로 우뚝섰다. 데얀은 MVP,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득점왕, 팬타스틱 플레이어(FAN-tastic Player) 등 4관왕에 올랐다.

감독상도 서울에서 나왔다. 2년 만에 서울을 우승으로 이끈 최용수 감독은 78표를 얻어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빛나는 울산의 김호곤 감독(29표)을 49표 차로 따돌리고 수상에 영예를 맛봤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 선수상은 이명주(포항)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5골6도움의 걸출한 성적을 올린 이명주는 신인답지 않은 차분한 플레이와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이며 104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이한샘(광주·8표)과 박선용(전남·4표)을 제치고 신인왕을 수상했다. 베스트 11은 K리그 우승팀인 서울이 휩쓸었다.

서울은 골키퍼 이용대를 필두로 수비수 아디, 미드필더 하대성과 풀리나, 공격수 데얀 등 5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AFC 올해의 선수’인 이근호(울산), 황진성(포항), 정인환(인천), 김창수(부산), 박태휘(울산), 이동국(전북)도 베스트 11로 뽑혔다. 한편 축구팬이 직접 뽑는 ‘아디다스 올인 팬타스틱 플레이어(FAN-tastic Player)’의 영예는 MVP로 뽑힌 데얀이 선정돼 결정사를 맞았다. /연합뉴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경기위원회(CTI) 점검단이 3일 서구 치평동 U대회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0구단 창단 대선후보에 공개질의

프로야구 선수협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새누리당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10구단 창단에 관해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30일 두 명의 대선후보에게 10구단 창단 결정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선수협회는 “일부 재벌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구단 창단결정이 미뤄지는 것이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10구단 창단반대와 연기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고 10구단 창단결정에 관한 의견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공개 질의를 하게 됐다” 말했다.

선수협회는 또 KBO 이사회에서 서둘러 10구단 창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11일 예정된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선수협회는 6일 인천에서 열리는 선수협 총회에서 10구단 창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동민·최다원 우수선수상

2012 검도인의 밤

김동민(서석고)과 최다원(신창검도관)이 2012 대한검도회 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민과 최다원은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열린 2012년도 검도인의 밤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신창검도관과 서석중학교는 각각 초등부와 중학부 우수 단체상을 받았고, 신창검도관 나훈일 관장과 오상은 서석중 감독은 지도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검도회 김종을 부회장에게는 공로상이 돌아갔으며, 제 1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대표로 출전한 최철규에게도 공로상이 주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A매치 2게임 정지+410만원 벌금

FIFA 가벼운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에 대해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FIFA로부터 박종우에게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410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황소할 수도 없다. 축구협회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그라운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상벌위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지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FIFA는 이번 상벌위 결과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통보될 예정이며, IOC는 FIFA의 결정을 토대로 보류 조치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0일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독도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 /연합뉴스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